

경기 북부지역 복지시설 이용노인의 급식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김영순 · 박영심* · †최병범*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Foodservic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the Welfare Facilities in the Northern Gyeonggi-do Area

Young Soon Kim, Young Shim Park* and †Byung Bum Choi*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480-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s related with facility foodservice for the elderly in the Northern Gyeonggi-do area (Republic of Korea). To accomplish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health inform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foodservice of a welfare facility in the area. The main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for both the male and female elderly included 'health professionals' (49.0, 45.7%) and the 'mass media' (34.4, 33.5%), and they were revealed to trust the information from 'health professionals' (65.6, 59.5%), more so than the 'mass media' (19.8, 20.8%). The principal diseases of the elderly were 'hypertension' (27.1%), 'diabetes' (21.9%), 'palsy' (19.8%) in males, and 'hypertension' (32.4%), 'diabetes' (24.9%), 'arthritis' (15.0%) in females. Most male and female elderly indicated the main reasons for skipping a meal to be 'no appetite' (37.5, 53.8%) and 'indigestion' (19.1, 17.3%), respectively. The facility foodservice was used by the male elderly for the reasons of 'irritating to cook' (28.1%), 'to meet a friend' (26.0%), and 'economic' (14.6%), while the female elderly used it for the reasons of 'economic' (25.4%), 'to meet a friend' (23.1%), and 'irritating to cook' (23.1%). The reasons for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y were subject to 'meal supply' (28.0, 37.2%), 'social exchanges' (20.0, 22.3%), and 'good facilities' (18.7, 18.2%). Regarding the officers and nurses of the facility, 13.3% and 9.3% of males and 8.3% and 12.4% of females indicated satisfaction, respectively. The satisfaction with foodservice influenced the welfare facilities, and providing a successful environment for foodservice requires strengthening of the education of facilities employees to become friendlier. Based on these results,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facility foodservice for the elderly related to the silver service industry in the Northern Gyeonggi-do area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elderly, facility foodservice, satisfaction

서론

최근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제도의 변화, 생활양식의 가치 변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노인들 역시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게 전적으로 노후를 의지

하기 보다는 자녀와 분리하여 노후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Park JH 2006). 향후 노인 부양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정부 및 사회가 주체인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고, 가족구성원이 전담하던 역할을 전문적인 인력과 환경이 갖추어진 노인복지시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Hwang IO 2007).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 Corresponding author: Byung Bum Choi, Dept. of Food and Nutrition,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480-701, Korea. Tel: +82-31-870-3505, Fax: +82-31-870-3519, E-mail: bbchoi@shinhan.ac.kr

인해 건강한 고령자라 하더라도 노후의 어느 시점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며,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서비스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는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노인들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Choi & Jang 2004).

노인은 소화기관 및 신체기능 약화와 심리적 요인에 따른 식욕 감퇴와 식사량 감소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및 영양지식 부족으로 영양상태가 불량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OS 2009; Kim 등 2012; Seo 등 2013a). 노인들에게 식사와 음식은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음식만족도는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등 2013b). 노인 무료급식제도는 정부가 경로식당,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종교 시설 등에 위탁하여 저소득층 및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혜자인 노인의 기대와 만족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양화되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급식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무료급식시설의 양적 증가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단순한 점심 한 끼 제공을 뛰어넘어 시설 이용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급식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 수요 및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복지 시설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급식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노인들의 영양과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급식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경기 북부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

부지역의 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불완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외하고, 269부(회수율 89.7%)를 회수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노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과거 직업, 거동 상태, 건강정보 출처 및 신뢰도, 운동주기, 현재 질환 수 및 질환 명,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수, 현재 식사 형태, 식사의 잔반 상태, 식사를 거르는 이유, 급식서비스의 이용 이유와 알게 된 경로 및 추천 의향, 질환별 급식서비스 필요 여부, 급식의 맛과 식사 시간 및 양의 만족도, 급식의 위생 및 온도 만족도, 시설만족도 및 만족 이유, 시설종사자 만족도 등의 항목들을 측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설문항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에게는 조사대상자와 면접원이 설문지 항목을 직접 설명하고, 응답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불완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외하고 회수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version 19)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거동상태, 건강정보 출처 및 신뢰도, 운동주기, 현재 질환 수 및 질환 명,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수, 현재 식사 형태, 식사의 잔반 상태, 식사를 거르는 이유, 급식서비스의 이용 이유와 알게 된 경로 및 추천 의향, 질환별 급식서비스 필요 여부, 급식의 맛과 식사 시간 및 양의 만족도, 급식의 위생 및 온도 만족도, 시설만족도 및 만족 이유, 시설종사자 만족도 등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test($p < 0.05$)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은 총 269명으로 평균 연령은 76.7세이며, 이 중 남성이 35.7%(96명), 여성이 64.3%(173명)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 인구의 성비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Jeong GH 1998). 연령별로는 81세 이상이 44.6%(120명)로 가장 많았고, 76~80세가 21.2%(57명), 71~75세 13.0%(35명) 순이었으며, 남자노인의 46.9%(45명)와 여자노인의 13.3%(23명)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고, 사별한 경우는 남자는 46.9%(45명), 여자는 85.0%(147명)로 나타났다. 이는 40대 이후의 남자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N	%	N	%	N	%
Gender	Male	96	100.0	0	0.0	96	35.7
	Female	0	0.0	173	100.0	173	64.3
Age	61~65	18	18.8	12	6.9	30	11.2
	66~70	21	21.8	6	3.5	27	10.0
	71~75	15	15.6	20	11.6	35	13.0
	76~80	18	18.8	39	22.5	57	21.2
	Longer than 81	24	25.0	96	55.5	120	44.6
	Spouse	Alive	45	46.9	23	13.3	68
	Bereavement	45	46.9	147	85.0	192	71.4
	Divorce	6	6.2	3	1.7	9	3.3
Education level	Under elementary school	3	3.1	108	62.4	111	41.3
	Elementary school	51	53.1	51	29.5	102	37.9
	Middle school	15	15.6	9	5.2	24	8.9
	High school	18	18.8	5	2.9	23	8.6
	Above college	9	9.4	0	0.0	9	3.3
Last job	Office worker	15	15.6	5	2.9	20	7.4
	Self employed	24	25.0	12	6.9	36	13.4
	Official	9	9.4	0	0.0	9	3.3
	Professional	18	18.8	2	1.2	20	7.4
	None	3	3.1	86	49.7	89	33.6
	Others	27	28.1	68	39.3	95	34.9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다 5~7년 정도 더 길다는 점들이 노인인구의 남녀 간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녀 간 성비의 차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80세 이상의 장수자들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3~4배 정도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현상이다(Nam 등 2000). 또한, 우리 사회가 경제의 발전에 따른 저출산,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 독신이나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 단독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사대상자의 41.3%가 '무학'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37.9%, '중학교 졸업' 8.9%, '고등학교 졸업' 8.6%, '대학교 이상 졸업' 3.3%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3.1%, 여자노인의 62.4%가 '무학'이었으며, 남자 53.1%, 여자 29.5%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의 학력은 현재 의무교육인 '중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88.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과거 교육 여건과 환경이 현재보다 대단히 열악하였고, 조사대상자의 과거 직업에서도 대부분 '무직'(33.6%)이거나 '자영업'(13.4%)에 종사하였으며, '전문직'과 '회사원'이 각각 7.4,

7.4%에 불과한 것도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정보 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거동이 혼자 가능한 경우'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78.1, 79.2%로 비교적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강정보 출처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49.0, 45.7%가 의료진, 건강상담가 등의 '건강전문가', 34.4, 33.5%가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순이었고, 건강정보출처 신뢰도 역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65.6, 59.5%가 '건강전문가', 19.8, 20.8%가 '대중매체'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노인은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건강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를 대중매체보다 건강전문가가 높다고 응답하여 향후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인 방문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Table 3과 같다. 운동 횟수는 남자노인은 '1주일에 1~2회'(43.8%), '매일'(21.9%), '거의 하지 않는다'(21.9%)의 순이었으나, 여자노인은 '거의 하지 않는다'가 63.0%로 가장 많았고, '매일'(16.8%), '1주일에 1~2회'(15.0%)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49.9%가 걷기운동을 하고 있고, 9.9%는 근력운동을, 27.7%는 유연성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운동은 근육형성에 기여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고, 노인들은 건강정보가 많고, 건강자각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가 높으므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건강에 대한 자각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Choi BB 2009).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 수를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68.8, 64.2%가 '1~2개', 12.5, 26.0%가 '3~4개'의 순이었으며,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남자노인은 '고혈압'(27.1%), '당뇨병'(21.9%), '뇌졸중'(19.8%)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고혈압'(32.4%), '당뇨병'(24.9%), '관절염'(15.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질환으로 인한 복용 약물 수는 남자노인은 '1~2개'(31.3%), '3~4개'(21.9%)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1~2개'(31.8%), '1개'(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동 횟수, 질환의 수와 종류 및 복용 약물 수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그룹 간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주로 '밥'(96.9, 96.0%)이었고, 식사외 잔반 조사에서 아침 식사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78.1, 58.4%가 '거의 다 먹는다', 12.5, 24.3%가 '가끔 먹는다'의 순이었고, 점심 식사는 남자노인 모두 '거의 다 먹는다'(100.0%), 여자노

Table 2. The health information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χ^2 (p)
		N	%	N	%	N	%	
Behavior	Disable	12	12.5	11	6.4	23	8.6	4.478 (0.214)
	Able	75	78.1	137	79.2	212	78.8	
	A little help by others	7	7.3	16	9.2	23	8.6	
	Much help by others	2	2.1	9	5.2	11	4.1	
Health information source	Mass-media	33	34.4	58	33.5	91	33.8	3.791 (0.285)
	Health-related professionals	47	49.0	79	45.7	126	46.8	
	Family or friends	7	7.3	7	4.0	14	5.2	
	Others	9	9.4	29	16.8	38	14.1	
Reliable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Mass-media	19	19.8	36	20.8	55	20.4	3.515 (0.319)
	Health-related professionals	63	65.6	103	59.5	166	61.7	
	Family or friends	7	7.3	9	5.2	16	5.9	
	Others	7	7.3	25	14.5	32	11.9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Table 3.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χ^2 (p)
		N	%	N	%	N	%	
Exercise frequency per week	Everyday	21	21.9	29	16.8	50	18.6	46.839* (0.000)
	1 to 2 times	42	43.8	26	15.0	68	25.3	
	3 to 4 times	12	12.5	9	5.2	21	7.8	
	None	21	21.9	109	63.0	130	48.3	
Diseases	None	12	12.5	9	5.2	21	7.8	10.042* (0.018)
	1 to 2	66	68.8	111	64.2	177	65.8	
	3 to 4	12	12.5	45	26.0	57	21.2	
	More than 5	6	6.3	8	4.6	14	5.2	
Disease type	Diabetes	21	21.9	43	24.9	65	23.8	28.234* (0.001)
	Hypertension	26	27.1	56	32.4	81	30.5	
	Stroke	19	19.8	4	2.3	23	8.6	
	Dementia	2	2.1	6	3.5	8	3.0	
	Osteoporosis	6	6.3	16	9.2	22	8.2	
	Stomach diseases	4	4.2	5	2.9	9	3.3	
	Arthritis	9	9.4	26	15.0	35	13.0	
Others	9	9.4	17	9.8	26	9.7		
Drug types	None	18	18.8	12	6.9	30	11.2	11.766* (0.019)
	One	18	18.8	46	26.6	64	23.8	
	1 to 2	30	31.3	55	31.8	85	31.6	
	3 to 4	21	21.9	32	18.5	53	19.7	
	More than 5	9	9.4	28	16.2	37	13.8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 $p < 0.05$ by χ^2 -test.

Table 4. The dietary behaviors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χ^2 (p)
		N	%	N	%	N	%	
Meal type	Rice	93	96.9	166	96.0	259	96.3	0.146 (0.702)
	Water gruel	3	3.1	7	4.0	10	3.7	
Leftovers of breakfast	Almost eating	75	78.1	101	58.4	176	65.4	10.647* (0.005)
	Leave	12	12.5	42	24.3	54	20.1	
	Almost not eating	9	9.4	30	17.3	39	14.5	
Leftovers of lunch	Almost eating	96	100.0	140	80.9	235	87.7	20.873* (0.000)
	Leave	0	0.0	31	17.9	32	11.5	
	Almost not eating	0	0.0	2	1.2	2	0.7	
Leftovers of dinner	Almost eating	90	93.8	111	64.2	201	74.7	34.151* (0.000)
	Leave	0	0.0	48	27.7	48	17.8	
	Almost not eating	6	6.3	14	8.1	20	7.4	
Skipping reason	No appetite	36	37.5	93	53.8	129	48.0	17.725* (0.001)
	No side dishes	10	10.4	25	14.5	35	13.0	
	A lot of snacks	5	5.2	4	2.3	9	3.3	
	Indigestion	15	15.6	30	17.3	45	16.7	
	Others	30	31.3	21	12.1	51	19.0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 $p < 0.05$ by χ^2 -test.

인은 ‘거의 다 먹는다’(80.9%), ‘가끔 먹는다’(17.9%)의 순이었다. 저녁 식사는 남자노인의 93.8%가 ‘거의 다 먹는다’, 여자노인은 ‘거의 다 먹는다’(64.2%), ‘가끔 먹는다’(27.7%)의 순이었다. 규칙적인 3끼의 식사는 대학생들과 달리 장수노인들의 중요한 식생활 특성이며, 식사의 규칙성은 건강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Choi BB 2013).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37.5, 53.8%가 ‘식욕이 없어서’, 19.1, 17.3%가 ‘소화가 안되어서’, 10.4, 14.5%가 ‘반찬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식욕 부족이 결식의 가장 큰 이유라고 여겨진다. 노인의 잔반 여부와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그룹 간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3. 조사대상자의 급식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대상자의 급식서비스 이용 현황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남자노인은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28.1%),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25.0%), ‘경제적인 이유’(14.6%)의 순이었으나, 여자노인은 ‘경제적인 이유’를 25.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23.1%),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23.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다음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은 급식서비

스가 외로운 재가 노인에게 친구라는 지지체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식서비스 참여를 통해 여러 명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Han 등 2004). 급식서비스는 단지 식사 그 자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장소에서 다른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의자가 되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의 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노인의 복지시설 급식서비스의 시행을 알게 된 경위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전체의 36.5, 68.8%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30.2, 8.7%가 ‘가족의 소개’로, 15.6, 6.9%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로식당 이용 노인들은 급식소가 가까이 있어서 알게 된 경우(36.0%)와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경우(33.4%)가 대부분이었다는 기존 보고와 유사하였다(Nam 등 2000). 급식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위해 접근성의 원칙, 수혜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원칙, 효율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Lee JS 2011).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90.6, 88.4%는 각각 주위에 급식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자노인의 경우, 가까이 있

Table 5. The facilities foodservice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χ^2 (p)
		N	%	N	%	N	%	
Reasons for foodservice	Economic	14	14.6	44	25.4	58	21.6	15.996* (0.007)
	To meet a friend	25	26.0	40	23.1	65	24.2	
	Irritating to cook	27	28.1	40	23.1	67	24.9	
	To reduce the burden of the family	5	5.2	1	0.6	6	2.2	
	Physically inactive	11	11.5	35	20.2	46	17.1	
	Others	14	14.6	13	7.5	27	10.0	
Foodservice information	Friend	15	15.6	12	6.9	27	10.0	42.443* (0.000)
	Facilities	8	8.3	12	6.9	20	7.4	
	Nearby	35	36.5	119	68.8	154	57.2	
	Family	29	30.2	15	8.7	44	16.4	
	Government office	9	9.4	6	3.5	15	5.6	
	Others	0	0.0	9	5.2	9	3.3	
Foodservice recommendation	Yes	87	90.6	153	88.4	240	89.2	0.307 (0.580)
	No	9	9.4	20	11.6	29	10.8	
Diet therapy	Necessary	63	65.6	75	43.4	138	51.3	12.259* (0.000)
	Unnecessary	33	34.4	98	56.6	131	48.7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 $p < 0.05$ by χ^2 -test.

는 복지관의 홍보나 관련 공무원의 소개로 급식서비스를 알고 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노인은 친구의 소개나 복지서비스를 받는 중에 알게 되어 급식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여자노인은 인간관계를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고, 남자노인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Lee JS 2011), 이는 급식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기 위한 홍보경로가 성별에 따라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65.6, 43.4%가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체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30.1%), 당뇨병(24.2%), 관절염(1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전체의 51.3%가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추가비용 및 예산을 고려할 때, 이들 질환의 식사요법에 관한 영양교육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질환에 맞는 식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지역 복지시설 이용노인 조사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골다공증 등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Jang HJ 2008), 노인들에게 급식을 통한 영양상태 개선 및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질병의 발생을 줄인다면 질병치료비의 국가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

인의 급식서비스의 이용 이유, 시행 경위 및 질환별 필요 여부는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4. 노인복지 급식 및 복지 시설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급식 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구체적인 급식서비스의 맛, 위생, 및 온도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맛 56.3, 72.3%, 위생 상태 52.1, 86.7%, 온도 53.1, 8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자노인의 만족도가 남자노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시간과 밥, 국, 반찬의 양에 대해서도 각각 90.6, 97.7%, 90.6, 91.9%, 90.6, 93.6%, 87.5, 9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급식 만족도는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복지시설과 종사자 만족도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복지시설 만족도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전체의 78.1, 69.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196명) 조사한 만족 이유로는 남자노인은 '식사를 제공하여서'(28.0%), '노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20.0%), '시설이 좋아서'(18.7%)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식사를 제공하여서'(37.2%), '노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22.3%), '시설이 좋아서'(1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의 시설 종사자 만족도는 '기타 및 무응답'이 남자노인과 여자

Table 6.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facilities foodservice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χ^2 (p)
		N	%	N	%	N	%	
Taste	Satisfied	54	56.3	125	72.3	179	66.5	16.592* (0.000)
	Average	42	43.8	39	22.5	81	30.1	
	Dissatisfied	0	0.0	9	5.2	9	3.3	
Lunch time	Early	9	9.4	2	1.2	11	4.1	11.632* (0.003)
	Reasonable	87	90.6	169	97.7	256	95.2	
	Late	0	0.0	2	1.2	2	0.7	
The amount of rice	Many	6	6.3	9	5.2	15	5.6	0.144 (0.930)
	Suitable	87	90.6	159	91.9	246	91.4	
	Less	3	3.1	5	2.9	8	3.0	
The amount of soup	Many	9	9.4	8	4.6	17	6.3	3.930 (0.140)
	Suitable	87	90.6	162	93.6	249	92.6	
	Less	0	0.0	3	1.7	3	1.1	
The amount of side dishes	Many	9	9.4	9	5.2	18	6.7	1.729 (0.421)
	Suitable	84	87.5	158	91.3	242	90.0	
	Less	3	3.1	6	3.5	9	3.3	
Hygiene	Satisfied	50	52.1	150	86.7	200	74.3	39.297* (0.000)
	Average	45	46.9	23	13.3	68	25.3	
	Dissatisfied	1	1.0	0	0.0	1	0.4	
Temperature	Satisfied	51	53.1	155	89.6	206	76.6	46.907* (0.000)
	Average	42	43.8	18	10.4	60	22.3	
	Dissatisfied	3	3.1	0	0.0	3	1.1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 $p < 0.05$ by χ^2 -test.

노인 각각 49.3, 67.8%이었으며, 남자노인은 ‘시설 행정직원’(13.3%), ‘간호사’(9.3%), ‘생활지도사’(9.3%)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간호사’(12.4%), ‘시설 행정직원’(8.3%), ‘영양사 및 조리원’(5.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의 맛, 시간, 위생, 온도와 복지 시설의 만족도 및 종사자의 만족도 이유는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시설종사자의 경우, 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시설이용 노인에게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설종사자에게 의논하거나 요청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시설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여부는 시설이용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Choi 등 2008; Hyeon BH 2008).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급식서비스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사교의 장이 될 수 있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식 만족도가 복지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고

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더욱 따뜻한 온정을 품고, 시설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급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급식 및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고, 향후 경기 북부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요 약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경기 북부(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거주하는 노인을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급식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76.7세이며, 남성과 여성이 각각 35.7, 64.3%, 배우자 사별은 남자노인은 46.9%, 여자노인은 85.0%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졸 이하가 전체의 88.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과거 직업은 대부분 무직(33.6%)이거나 자영업(13.4%)

Table 7.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welfare facilities of the elderly

		Male		Female		Total		χ^2 (p)
		N	%	N	%	N	%	
Welfare facilities	Satisfied	75	78.1	121	69.9	196	72.9	2.922 (0.232)
	Average	19	19.8	50	28.9	69	25.7	
	Dissatisfied	2	2.1	2	1.2	4	1.5	
	Total	96	100.0	173	100.0	269	100.0	
Reasons of satisfaction	Good facilities	14	18.7	22	18.2	36	18.4	9.347 (0.096)
	Good programs	9	12.0	4	3.3	13	6.6	
	Meal supply	21	28.0	45	37.21	66	33.7	
	Friendly workers	7	9.3	16	13.2	23	11.7	
	Social exchanges	15	20.0	27	22.3	42	21.4	
	Others	9	12.0	7	5.8	16	8.2	
Welfare workers	Nurse	7	9.3	15	12.4	22	11.2	14.083* (0.029)
	Social worker	5	6.7	3	2.5	8	4.1	
	Volunteer	5	6.7	3	2.5	8	4.1	
	Dietitian and cook	4	5.3	6	5.0	10	5.1	
	Life manager	7	9.3	2	1.7	9	4.6	
	Facilities officer	10	13.3	10	8.3	20	10.2	
	Others	37	49.3	82	67.8	119	60.7	
Total	75	100.0	121	100.0	196	100.0		

* $p < 0.05$ by χ^2 -test.

에 종사하였다.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78.1, 79.2%로 비교적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가능하였고, 건강정보 출처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건강전문가(49.0, 45.7%), 대중매체(34.4, 33.5%)의 순이었고, 건강정보 출처 신뢰도 역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건강전문가(65.6, 59.8%), 대중매체(19.5, 20.8%)의 순이었다. 운동 횟수는 남자노인은 '주일에 1~2회'(43.8%), '매일'(21.9%)의 순이었으나, 여자노인은 '거의 하지 않는다'가 63.0%로 가장 많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노인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남자노인은 '고혈압'(27.1%), '당뇨병'(21.9%), '뇌졸중'(19.8%)의 순이었고, 여자노인은 '고혈압'(32.4%), '당뇨병'(24.9%), '관절염'(15.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남자노인은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28.1%),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25.0%), '경제적인 이유'(14.6%)의 순이었으나, 여자노인은 '경제적인 이유'(25.4%),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23.1%),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23.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인의 복지시설 급식서비스의 시행을 알게 된 경위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전체의 36.5, 68.8%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30.2, 8.7%가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65.6, 43.4%가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자노인

과 여자노인 각각 전체의 56.3, 72.3%, 52.1, 86.7%, 53.1, 89.6%가 급식의 맛, 위생 상태, 온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특히 여자노인의 만족도가 남자노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지 시설 만족도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전체의 78.1, 69.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 이유로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식사를 제공하여서'(28.0, 37.2%), '노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20.0, 22.3%), '시설이 좋아서'(18.7, 1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설종사자 만족도는 '기타 및 무응답'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 49.3, 67.8%이었으며, 남자노인은 '시설 행정직원'(13.3%), '간호사'(9.3%), 여자노인은 '간호사'(12.4%), '시설 행정직원'(8.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급식 및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고, 향후 경기 북부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References

Choi BB, Kim SH, Lee YJ, Yu JH. 2008. Studies on the demands of development program of silver industrial pro-

- professionals in the northern Gyeonggi-do area. *Korean J Food & Nutr* 21:583-591
- Choi BB. 2009. Studies on the satisfactions of elderly welfare professionals in the northern Gyeonggi-do area. *Korean J Food & Nutr* 22:213-222
- Choi BB. 2013. Dietary habit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the northern Gyeonggi-do region. *Korean J Food & Nutr* 26:404-413
- Choi SJ, Jang IH. 2004. Elderly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eoul, Korea
- Hyeon BH. 2008.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care facilities. MS Thesis, Daejeon Univ. Daejeon, Korea.
- Jang HJ. 2008.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foodservice through identifying the foodservice quality factors in senior care facilitie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69-79
- Jeong GH. 1998. Social indicators of change to the policy issue of this family. *Health and Social Research* 1:3-28
- Kim Y, Seo S, Kwon O, Cho MS. 2012. Comparisons of dietary behavior, food intake, and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between the elderly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 Nutr* 45:252-263
- Lee JS. 2011. Factors affecting on fee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using free meal for the welfare facilities in the Busan-Yeongdo area. Ph.D. Thesis, Kosin Univ. Busan, Korea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7. Elderly Welfare Law. Seoul, Kore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2006 Statu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Seoul, Kore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2009 Elderly Health & Welfare Project pp728-732, p811. Seoul, Kore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2011. Seoul, Korea
- Nam HW, Lee YM, Myung CO, Lee KW, Park YS. 2000.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oward free congregate meal servic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5:74-82
- Park JH. 2006. Life satisfaction of paid-elderly welfare facilities. MS Thesis, Catholic Univ. Seoul. Korea
- Seo OS. 2009. The study on eating habits of Korea elderly people. MS Thesis, Dongguk Univ. Seoul, Korea
- Seo S, Cho M, Kim Y, Ahn J. 2013b.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depression, isolation, social support,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in elderly South Koreans. *J Korean Diet Assoc* 19:159-172
- Seo SH, Yu EJ, Ahn J. 2013a.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ongregate meal services from the low-income elderly. *J Korean Diet Assoc* 19:298-305

접 수 : 2014년 8월 12일
 최종수정 : 2014년 9월 29일
 채 택 : 2014년 9월 30일